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박 수 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의 1999년,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여성의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 활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1999년과 2004년 일, 가족, 여가를 둘러싼 고령집단의 성별 생활세계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이 줄고 가족생활시간이 증가하였다. 고령집단의 경제활동 상태 역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과 마찬가지로 남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고령자보다 길게 나타났다. 반면 무급노동시간은 여성고령자가 남성고령자보다 월등히 높아서 고령층에서도 성별분업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고령여성이 더 길고, 이것은 다시 여가시간의 활용 측면에서 고령여성을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했다. 생활시간사용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고령여성의 생활세계는 그들이 지금도 많은 일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열악한 여가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 동안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병행하는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은 고령집단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며 바로 이 지점이 이들의 고단한 삶을 풀어주기 위해 사회전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고령여성, 생활시간조사, 고령여성의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2차년도(2006년) 연구임 (KRF-2005-078-BS000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문제제기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문제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이들 집단을 사회적 부양 대상으로 여기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령집단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새로운 의사결정집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고령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여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고령여성의 삶의 질이 고령남성에 비해서 더욱 열악하다는 연구결과(박영란·황정임, 2002)들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까닭에 고령층 가운데에서도 좀 더 연령이 높은 고령층의 여초 현상이 눈에 띄며 이런 인구분포는 고령여성의 사회적 제 측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고령여성 가운데에는 사별 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고령남성집단보다 높으며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더욱 힘겨운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성층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여성의 삶의 문제는 곧 고령남성의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문제에 봉착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사회 고령여성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들의 일상생활 시간 사용을 통해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시간 사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는 고령남성의 생활세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여성 내부의 다양한 하위집단별 차이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통계청의 1999년,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고령여성의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생활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생활시간조사 개요

한국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생활시간 조사는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1999년과 2004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조사항목은 시간일지와 주택종류, 입주형태 및 미취학 아동 보육형태 등의 가구관련 사항, 그리고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개인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등의 개인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표본 조사구는 계통추출방법에 의해 추출된 850개 표본조사구로, 표본추출결과 1999년에는 17,000가구의 46,109명이, 2004년에는 12,750가구의 32,191명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 중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응답자는 1999년엔 93.2%인 42,973명이었으며, 85,906일의 시간일지가 활용되었고 2004년엔 유효 응답자가 98.3%인 31,634명, 63,268개의 시간일지가 활용되었다(통계청, 1999, 2004).

시간일지는 2일(48시간)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것으로, 10분 간격으로 어떤 행동을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일지에 기입된 행동은 통계청에서 개발한 행동분류체계에 따라 9개의 대분류와 51개의 중분류, 125개의 소분류로 부호화되어 있다(<표 1> 참조).

이 연구는 <표 1>에 나타난 통계청의 행동분류체계에 준하여 ‘일’, ‘가족생활’, ‘여가’를 구분하였다. 먼저 ‘일’은 행동분류체계의 ‘유급노동’ 시간으로 중분류인 ‘일(무급가족종사일 포함)’과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전일제 학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학습’시간은 유급노동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의 학습은 ‘일’ 범주에 속한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은 행동분류체계의 ‘무급노동’ 시간으로 중분류인 ‘가사노동’, ‘재화/용역 구입’, ‘가족보살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여

가'는 행동분류체계의 '잔여범주' 시간으로 중분류인 '조직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 '대중매체' 시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1〉 행동분류체계¹⁾

시간분류	행동분류체계		
비자유 시간	개인유지 (필요시간)	개인유지	11 수면 12 식사 및 간식 13 개인관리 14 건강관리(의료적) 199 기타 개인유지
	유급노동 (계약시간)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2 무급가족종사일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구직활동 26 일관련 물품구입 27 기타일 관련 행동
		학습	31 학생의 학교교습 32 학생의 학교외 학습 33 학습관련 물품구입
	무급노동 (의무시간)	가사노동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421~424) 43 청소 및 정리 44 그 외 집 관리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 499 기타 가사일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재화/용역 구입	441 집 손질 및 관련서비스 받기 442 세차, 차량 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족보살피기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계 속)

1) 1999년,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 행동분류체계임.

시간분류	행동분류체계			
자유 시간	잔여범주 (여가소비)	조직활동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2 지역공동체 활동 63 사회참여 활동 64 자원봉사 74 종교활동	
		교제활동	71 교제활동 755 유흥(술, 춤, 노래방)	
		레저활동	학습	73 일반인의 학습
			문화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취미	7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425 재봉, 뜨개질 780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아이쇼핑, 비디오 빌리기)
		대중매체	72 대중매체 이용	
		이동: 811 개인유지관련 이동, 821 출퇴근, 822 그 외 일 관련 이동 831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841 가정관리 관련 이동, 851 가족보살피기 관련이동		
기타: 919 생활시간 조사 설문지 기입, 999 그 외 기타				

2. 고령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총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29.4%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남성이 39.8%, 여성이 60.2%로 고령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26.2%이었던 반면 남성의 증가율은 34.9%로 나타나 남성의 고령화 현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표 2〉 고령자(65세이상) 규모 및 추이

(단위: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총인구	37,407	40,420	8.1	43,390	7.3	44,554	2.7	45,985	3.2	47,026	2.3
65세 이상	1,446	1,750	21.0	2,262	29.3	2,640	16.7	3,372	27.7	4,365	29.4
남자	539	652	20.9	811	24.3	975	20.2	1,287	32.1	1,736	34.9
여자	907	1,097	21.0	1,452	32.3	1,666	14.7	2,084	25.2	2,629	26.2
구성비	3.9	4.3		5.2		5.9		7.3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고령자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 현재 고령자의 연령별 분포는 65세~69세가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세~74세 28.7%, 75세~79세 17.6% 등의 순이었으며 80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는 15.2%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고령집단 내의 연령별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8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476,965명으로 고령인구 내 비율은 14.1%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665,547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고령인구 내 비율도 15.2%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고령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이 55.4%, 사별이 42.9%, 이혼과 미혼이 각각 1.1%, 0.5%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33.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 37.0%, 중학교 10.9%, 고등학교 11.4%등의 순이며, 대학 이상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령남성의 경우 무학의 비중이 15.5%로 크게 감소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고령여성은 무학(45.3%)과 초등학교 졸업(38.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세대구성별로는 2005년 현재 전체 고령인구 중 33.0%가 1세대 가구에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2세대 가구(24.9%)와 3세대 가구(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에만 해도 3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떠올릴 때,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증대 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통계청, 2007). 이는 또한 전체 고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인구 집단 내에서 고령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 고령여성과 일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시간이나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고, 노동에 배분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공식적 영역에서의 사회경험이 적고,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인구 중 32.6%인 1,585,432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남성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여성은 25.9%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남녀 모두 농업 및 임업(73.8%)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도매·소매업과 보건복지공공개인서비스업 및 기타에 해당되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고령남성의 경우 자영자가 73.8%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74.0%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통계청, 2007).

한편 노인들의 유급노동시간은 노인 자신의 건강상태나 연령, 직종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5세~69세의 낮은 연령층이 38.4%, 70대가 27.9%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령과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노인의 유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종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생활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정경희, 2001),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세 시간 이상 긴 유급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경우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농현상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고령여성과 가사노동, 가족보살핌 노동

일반적으로 노인 시기는 신체가 약해지고 경제적 수입이 감소되는 등 단독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행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가사노동의 요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문숙재, 1996), 결혼 상태나 세대구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고령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세대 가구나 1인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이라 할지라도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등의 기본적인 가사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시간이 유지되는 가사노동과 달리 노인들의 가족보살핌 관련 시간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손자녀의 출산이나 아이돌보기, 집안 보살핌 등 가정의 주변역할을 분담하거나 육아 또는 가사돌보기의 경험자로서 기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동거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의 가사노동의 양과 내용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3) 고령여성과 여가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재생산을 위한 활력’으로 여겨지는 일반성인의 여가와 달리 노인의 여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전체이며, 취미나 오락, 자기개발 등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다양하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고령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조경옥, 2005).

고령 여성의 여가유형은 일반적으로 TV나 신문보기, 친구나 이웃과의 담소, 집안일 보기 등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이 많은데, 이는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적 활동 경험이 제한적인 고령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 또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조경옥, 2005).

한편 노인의 여가유형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이가옥 외, 1995), 고령남성의 여가활동의 종류가 3.1개인 반면 고령여성은 2.4개로 고령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하는 여가활동 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경제적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노인 1인가구의 83.7% 가량이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지원과 가족, 친인척의 도움이 수입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1).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지낸 노인이 대부분이고 무배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클 것이며(유영주 외, 2000), 이는 이들의 여가활동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인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조경옥, 2005).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지향적으로 사회화되어 온 고령여성들에게 ‘가족관계’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유영주 외, 2000), 가족과의 관계는 고령여성의 삶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 친척이나 이웃,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망이 클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나 거주조건,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경옥, 2005).

Ⅲ. 한국 고령여성의 생활세계: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 표본의 주요 특성은 <표 3>과 같다. 고령집단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1999년 전체 고령집단의 여성 비율은 62.7%이며 2004년 동 비율은 61.1%이다. 고령남성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고령여성에 비해 65세~74세 집단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령분포는 결혼상태와 가구구성에 반영되어 고령여성은 사별 등의 이유로 1인 가구 또는 3세대 가구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고령남성은 2인 가구인 부부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고령층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충청·강원·호남·제주 등 대도시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 비율은 그들의 주택보유형태로 연결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가 및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9년 39.8%, 2004년 39.3%로 40% 가까운 고령자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 가운데 주당 근로 시간이 48시간이 넘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1999년 36.7%, 2004년 33.8%나 되었다. 고령자들 가운데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1999년 26.5%, 2004년 27.1%나 되었다.

<표 3> 생활시간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하위범주	1999년		2004년	
		65세 이상 노인 (N=8,590)		65세 이상 노인 (N=7,754)	
조 사 요 일	평일	5,276	(61.4)	4,668	(60.5)
	토요일	1,687	(19.6)	1,552	(20.0)
	일요일	1,627	(18.9)	1,514	(19.5)
성 별	남성	3,204	(37.3)	3,020	(38.9)
	여성	5,386	(62.7)	4,734	(61.1)

(계속)

구 분	하위범주	1999년		2004년	
		65세 이상 노인 (N=8,590)		65세 이상 노인 (N=7,754)	
지 역	수도권	1,825	(21.2)	1,654	(21.3)
	충청·강원	2,176	(25.3)	1,846	(23.8)
	영남	2,449	(28.5)	2,344	(30.2)
	호남·제주	2,140	(24.9)	1,910	(24.6)
농 가 구 분	농가	2,870	(33.4)	2,400	(31.0)
	비농가	5,720	(66.6)	5,354	(69.0)
혼 인 상 태	미혼	12	(0.1)	6	(0.1)
	유배우	4,424	(51.5)	4,502	(58.1)
	사별·이혼	4,154	(48.4)	3,246	(41.9)
교 육	중졸이하	7,750	(90.2)	6,694	(86.3)
	고졸	500	(5.8)	696	(9.0)
	초대졸이상	340	(4.0)	364	(4.7)
주 거 형 태	자가	7,151	(83.2)	6,312	(81.4)
	전월세·기타	1,439	(16.8)	1,442	(18.6)
주 택 종 류	단독주택	6,639	(77.3)	5,436	(70.1)
	아파트	1,213	(14.1)	1,662	(21.4)
	연립·기타	738	(8.6)	656	(8.5)
경 제 활 동	일했음	3,420	(39.8)	3,044	(39.3)
	안했음	5,170	(60.2)	4,710	(60.7)
주 당 근 로 시 간	없음	5,170	(60.2)	4,718	(60.8)
	1~23시간	758	(8.8)	612	(7.9)
	24~47시간	1,404	(16.3)	1,394	(18.0)
	48시간 이상	1,258	(14.6)	1,030	(13.3)
시 간 부 족 여 부	항상 부족	843	(9.8)	820	(10.6)
	가끔 부족	1,436	(16.7)	1,278	(16.5)
	거의 부족 없음	3,704	(35.8)	2,896	(37.3)
	전혀 부족 없음	3,237	(37.7)	2,760	(35.6)

자료: 통계청, 1999년 및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고령층의 개인유지시간, 일시간, 가족생활시간, 여가시간 분포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 한 고령층의 일상생활 패턴은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고령층의 개인유지

시간은 고령집단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긴 수면시간, 식사시간 등으로 인하여 11시간이 넘는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9년과 2004년 고령집단의 시간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유급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가족생활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고령층의 총여가시간 사용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세부 항목에서는 등락의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시간사용을 통해 살펴본 고령집단의 생활세계는 고령집단 내부의 성차(性差)가 그들 생활세계 구성의 주요 변인이며 이 차이는 5년간의 시간 경과에도 상당히 안정된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고령여성의 일, 가족, 여가생활을 고령남성과 비교하고 1999년과 2004년의 5년간의 변화상을 도상화한 것이 [그림 1]~[그림 4]이다. 이제 고령여성의 일, 가족, 여가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노인의 생활세계 비교

(단위: 분)

행동분류항목	1999년		2004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개인유지	678.2	678.8	676.6	674.4
- 수면	509.3	513.2	496.7	500.5
- 건강관리	29.9	36.7	23.8	30.4
일	173.4	129.6	158.8	109.2
- 유급노동	15.5	62.8	136.8	57.1
- 무급노동	26.8	66.4	21.0	51.2
무급가족노동	54.3	182.4	55.8	192.5
- 전통적 가사노동	42.9	165.4	46.5	177.4
- 보살핌 노동	11.5	17.1	9.3	15.2
여가	449.1	382.1	448.9	381.3
- 참여 및 봉사활동	3.7	5.3	3.3	5.2
- 교제활동	73.2	74.6	65.3	70.7
- 대중매체이용	236.5	179.6	247.5	186.7
- 종교 활동	5.7	21.7	6.6	24.0
- 문화·스포츠·취미	71.9	37.3	82.3	47.4
- 기타 여가활동	55.1	63.8	43.8	47.2

자료: 통계청, 1999년 및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1. 고령여성과 일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령집단의 경제활동 상태 역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과 마찬가지로 남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고령자보다 길게 나타났다. 1999년 남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은 173.4분, 여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은 129.6분이다. 이와 같은 성별 유형은 그대로 2004년에도 이어져서 2004년 남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은 158.8분, 여성고령자의 유급노동시간은 109.2분이다([그림 1] 참조). 1999년 고령집단의 성별 유급노동시간차이는 43.8분이며, 이 차이는 2004년에 오히려 늘어나서 2004년 성별 유급노동시간 차이는 49.6분으로 나타났다. 남녀고령자 모두 1999년에 비해 2004년의 경제활동시간이 감소하였다. 1999년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1시간 30분, ‘무급가족종사일’에 35분, ‘기타’ 16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용된 일 및 자영업시간이 여성보다 많고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일이 남성보다 많다. 이것은 종사상지위에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고 남성은 고용주/자영자가 많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은 유급노동시간 내용을 고령여성집단의 하위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먼저 고령여성의 연령별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64~69세 2시간 50분, 70~74세 2시간 6분, 75~79세 1시간 40분, 80세 이상 57분으로 나타나 연령증가와 함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고령여성의 교육수준별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무학 2시간 14분, 초등이하 1시간 57분, 중등이하 1시간 12분, 고등이하 1시간 6분, 대학이상은 29분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고령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학력수준과 직업위세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만큼 유급노동에 참여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고령층의 교육수준별 수입노동의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무학 36.2%, 초졸이하 31.6%, 중졸이하 27.1%, 고졸이하 20.6%, 대학이상 5.6%로 반비례하고

2) 지면 관계상 고령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시간사용 실태는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박수미·선보영·김진옥,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있었다. 이는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인적자본과 경제활동참여율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령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2시간 45분, 무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1시간 48분으로 유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이는 유배우자의 연령이 무배우자의 연령보다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자료에서 유배우자의 상태에 있는 56.9%가 65~69세이고, 27.4%가 70~74세, 12.0%가 75~79세이며, 80세 이상은 3.7%만이 유배우자의 상태에 있었다.

고령여성의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의 유급노동시간이 1인가구나 기타 2, 3세대를 이루는 가구보다 더 많다. 부부가구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은 이들의 연령이 다른 가구형태의 고령층 여성보다 더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본 자료에서 부부가구를 이루는 여성의 56.7%가 65~69세에 해당된다.

[그림 1] 1999년, 2004년 고령집단의 일 시간

(단위: 시간, 분)



2. 고령여성과 무급가족노동

고령자의 가족생활 관련 무급노동시간사용 실태는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유급노동시간의 성별격차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크기

의 성별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무급가족노동은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재화/용역 구입하기’, ‘가족 보살피기’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활동에 1999년 남성고령자는 54.3분, 여성고령자는 182.4분, 2004년 남성고령자는 55.8분, 여성고령자는 192.5분을 할애하고 있다. 1999년 여성고령자는 남성고령자에 비해 2시간 8분을, 2004년 여성고령자는 남성고령자에 비해 2시간 17분을 더 가족생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남녀고령자 모두 가족생활 관련 시간이 증대했으며 성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고령자는 남성고령자에 비해 유급노동은 40분~50분 적게 하고 무급노동은 2시간 10~20분 더 많이 하므로 총노동시간은 더 긴 셈이다. 이러한 패턴은 생애주기별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무급노동시간을 비교했을 때 자녀가 없는 시기만을 제외하고 자녀가 어리든 장성하였든 기혼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이 길었던 박수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무급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58분, 가족보살피기시간이 15분으로 가사노동시간이 무급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은 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고령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42분에 불과한 반면, 고령여성은 2시간 43분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보살피기시간은 고령여성이 손주 보살피기 등의 참여로 성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고령남성이 11분, 고령여성이 17분으로 가사노동시간만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사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음식준비 및 정리에 1시간, 청소 및 정리에 28분, 의류관리에 16분, 기타 14분을 사용하고 있어 음식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시간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의 구성은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청소 및 정리와 기타(물품구입, 집관리, 가정경영)활동의 구성비율이 높고, 여성은 음식준비 및 정리와 청소 및 정리 활동의 구성비율이 높다. 이는 고령층 여성은 식사준비, 세탁 등의 주된 가사노동을 남성보다 많이 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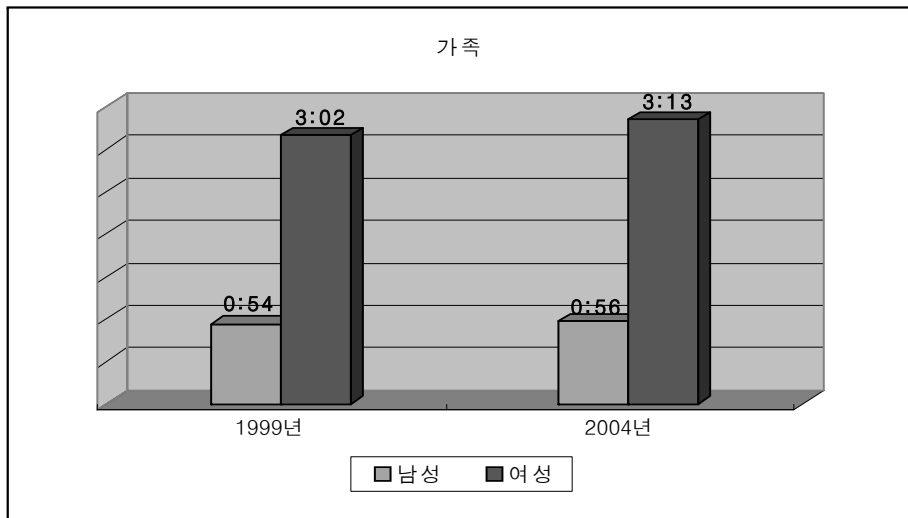
무급노동시간의 고령여성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여성의 연령별 무급노동시간은 64~69세 3시간 35분, 70~74세 3시간 15분, 75~79세 2시간 37분, 80세 이상 1시간 45분으로 나타나 유급노동시간과 마

찬가지로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한다. 결국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모두 연령증가와 함께 모두 감소하는데 이는 연령과 함께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제약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하지만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총시간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64~69세 6시간 25분, 70~74세 5시간 21분, 75~79세 4시간 17분, 80세 이상 2시간 42분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은퇴하여 노동하지 않는 집단이고, 사회적 부양대상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은 고령층이 되어서도 ‘노동으로부터의 은퇴’나 ‘사회적 부양대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민자·손문금, 2006).

고령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는 무학 2시간 45분, 초등 이하 3시간 25분, 중등이하 3시간 38분, 고등이하 3시간 43분, 대학이상 4시간 18분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무급노동시간을 이루는 가사노동시간도 학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보살피기시간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령여성의 경우 58분에 이르고 있다.³⁾

[그림 2] 1999년, 2004년 고령집단의 무급가족노동시간

(단위: 시간, 분)



3)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령여성 18명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은 대부분 배우자보살피기 10.0분,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 22.3분, 그 외 가족보살피기 23.9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고령여성과 여가

고령자의 여가시간활용도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격차가 분명하다. 1999년 고령남성의 여가시간은 7시간 29분, 고령여성의 여가시간은 6시간 22분, 2004년 고령남성의 여가시간은 7시간 29분, 고령여성의 여가시간은 6시간 21분이다. 1999년과 2004년 고령집단의 여가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성별 격차는 약 1시간 7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 사용은 고령자에게 여가시간이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개인유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고령여성의 총노동시간이 고령남성보다 긴 탓에 여가시간이 그만큼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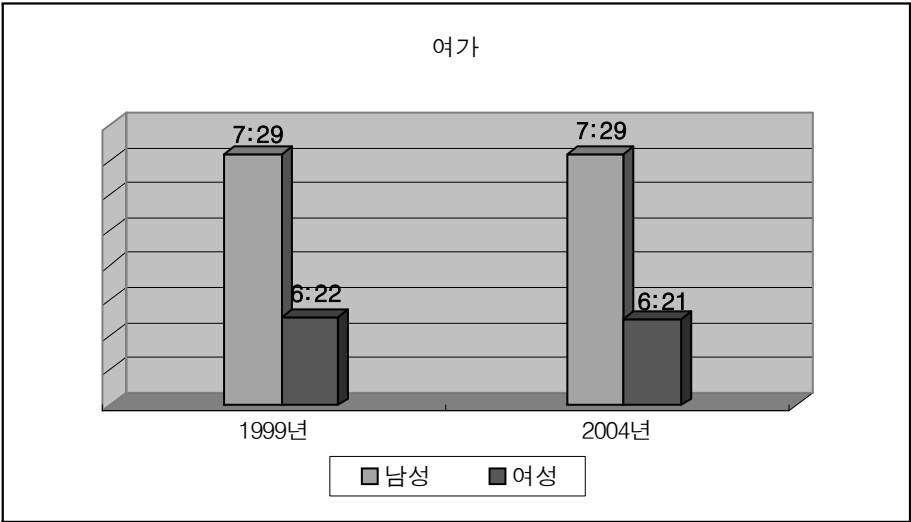
여가활동시간은 전체적으로 대중매체활동에 3시간 25분, 레저활동에 1시간 51분, 교제활동에 1시간 17분, 조직활동에 22분을 사용하고 있다. 각 중분류 여가활동영역별 중요한 하위 행동영역의 시간량을 살펴보면 대중매체활동시간이 고령층 여가활동시간의 49.5%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대중매체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은 TV시청시간이다([그림 4] 참조). 그리고 레저활동의 50%를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활동시간이 차지한다는 점과 조직활동의 대부분은 종교활동시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시간의 구성은 성별로 약간 다른데 남성들의 경우 대중매체활동과 레저활동시간이 여성보다 많고, 여성은 종교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제활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지만 그 하위 행동영역별로는 약간 다른데 여성은 가족·친척과의 교제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남성은 레저활동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난다.

고령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여가행동의 종류를 보면 TV시청활동은 91.3%가 하루 동안 한번이라도 선택하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고령층의 여가활동에 아무 것도 안하고 쉬는 활동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활동, 가족·친척과의 교제활동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 여성들이 활동제약으로 인하여 집에서 이웃 및 친구, 가족들과 만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걷기, 산책이나 종교활동, 바둑·장기 등의 놀이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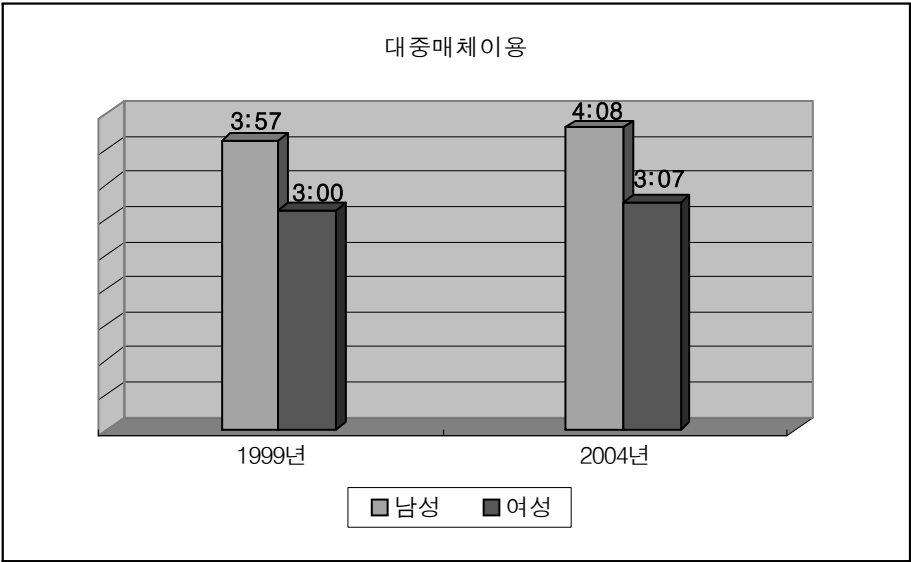
[그림 3] 1999년, 2004년 고령집단의 여가 시간

(단위: 시간, 분)



[그림 4] 1999년, 2004년 고령집단의 대중매체이용 시간

(단위: 시간, 분)



여가시간활용의 고령여성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여성의 연령대별로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였던 것과 교환관계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적교제시간, 대중매체시간, 레저활동시간은 전체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조직활동시간은 70~74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활동제약으로 인해 75세 이상의 고령여성은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령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앞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였던 것과 교환관계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을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은 조직활동, 대중매체활동은 전체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길어지지만 사적교제활동시간은 학력이 낮을수록 길어진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가 친구 및 이웃, 가족 중심으로 한정되어 나타남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레저활동시간은 학력에 따른 일관된 변화를 읽을 수 없고 무학과 고졸집단이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여가시간이 7시간 1분으로 유배우자의 5시간 21분보다 길다. 이것은 무배우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수입노동참여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령여성의 가구형태별로 나타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단독가구 6시간 22분, 부부가구 5시간 7분, 기타가구 6시간 48분으로 부부가구의 여가시간이 가장 적다. 이는 부부가구의 연령이 낮고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입노동여부에 따라서는 수입노동이 있는 여성은 수입노동이 없는 여성보다 약 3시간 14분 여가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당 수입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여성은 35시간 이하인 여성보다 1시간 45분 정도 여가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고령층여성은 수입노동의 참여여부 및 수입노동의 길이에 따라 여가시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령여성의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사무/기술직을 가진 여성의 여가시간이 다른 직종을 가진 여성보다 많다. 이에 이들의 조직활동, 교제활동, 레저활동이 다른 직종을 가진 여성들보다 많다. 특히 이들은 교제활동시간이 1시간 42분으로 다른 직종을 가진 여성들보다 많고, 대중매체활동시간은 다른 직종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여성의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여가시간이 4시간 32분으로 가장 길고 임금근로자의 여가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 여가시간의 하위범주별로는 고용주/자영자들의 경우 사적교제활동이 다른 종사상지위자들보다 긴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영자들의 경우 가게를 중심으로 이웃과 친교를 나누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의 하위 생활영역별 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하루생활의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수면, 식사 및 간식활동에는 모든 고령남성과 여성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차이가 나는 행위자비율은 고령여성은 건강관리에의 참여자비율이 남성보다 4% 더 많고, 유급노동에 있어서는 시간량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의 행위자비율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일의 행위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급노동도 시간량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동에서 고령남성보다 고령여성의 행위자비율이 높은데, 특히 고령여성은 음식준비 및 정리에 78.5%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높고, 고령남성들은 청소 및 정리의 행위자 비율이 36.4%로 약간 높다. 여가활동에서는 고령여성들이 고령남성보다 종교활동과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활동에의 행위자비율이 높고, 고령남성은 고령여성보다 시간량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유흥에의 행위자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IV. 맺음말: 고령여성의 생활세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고령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과 무급가족노동 그리고 여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여성들의 하위집단으로서의 특성과 취약점 등 전반적

인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여성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이들이 주로 65세~74세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여성의 학력은 고령여성의 직종이나 근로시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고령여성의 직종은 주로 농림어업직이며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고령남성에 비해서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며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령여성들은 고령남성에 비해 인적자본이 열악하며 그것의 활용 측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고령층에서도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전통적 성역할이 확인되었다.

고령남성과 비교할 때 고령여성이 이와 같은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고령여성집단내에서의 다양성도 포착되었다.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를 구분하는 주요변수는 수입노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와 수입노동시간의 길이였다. 이때 수입노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그들이 속한 가구가 농가인지 비농가인지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련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고령여성일수록, 그리고 농가에 속한 여성일수록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수입노동 시간도 길었다. 결국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고령여성의 유급노동은 주로 농림어업직에 분포하는 까닭에 수입노동에 참여하는 고령여성이 활기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지면 고령여성의 유급노동/무급노동이 감소하지만 농업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의 감소폭이 적은 편이다. 결국 여성들은 고령이 되어도 상당한 유급노동시간을 가지며, 이로 인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저학력 여성일수록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고령여성 대부분이 저학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고령이 되어서도 상당한 유급노동을 하고 있으며, 무급노동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이중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노동여부와 유급노동시간의 길이, 직종/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상태는 무급노동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령이 되어도 여성은 기본적인 무급노동 수

행자로 고착되어 있다.

고령여성을 한 집단으로서 범주화할 때 그들이 낮은 학력 보유자이고 주로 보조적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고령여성의 경제적 자립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고령여성의 여가 및 생활세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령집단내 성별격차를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여가시간은 학력이나 직종/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고령여성의 경우 저학력이 많고, 남성에게 비해 직종/직업위세도 낮으며, 경제적 자립도도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고령여성의 여가활동은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고, 고령층에게 있어 여가는 곧 대부분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여가활용실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고령 여성의 비중은 날로 증대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령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사노동을 계속 하면서, 사회적 통념과 달리 수입노동 활동 역시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유로운 은퇴기라는 이미지는 한국사회 고령 여성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과 다양한 가족구성형태의 확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성원들이 노년기로 보내야 할 생애주는 더욱 더 길어질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바이다. 자의든 타의든 자기자신을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들, 특히 고령여성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구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령집단의 유급노동의 필요성은 사회구성원 개인이나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한국 고령여성의 생활세계를 살펴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이 시기에도 변함없는 성별분업 관행과 전반적인 여가 활용의 열악함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나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고령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리고 청년층, 중장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집단은 역시 여성이었다. 미혼여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고령집단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기간 동안 여가시간의 확보와 내용 모두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문화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가 시설의 확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노력 이전에,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이 ‘일’과 공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 여가 활용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족·생활 친화적인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보다 미시적인 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단계를 넘어서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예정된 미래이며 우리 사회성원 모두가 적응해 가야 할 오늘의 환경이다. 고령집단의 문제는 고령여성집단의 문제 속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시간사용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고령여성의 생활세계는 그들이 지금도 많은 일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열악한 여가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 동안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병행하는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은 고령집단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며 대부분 여유로운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을 이들 세대는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생활세계를 이들이 경제적 생산활동 못지않게 사회적 생산활동도 왕성히 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김진욱, 2006). 이제 고령집단으로 진입하는 장년층들이 이루는 새로운 고령집단의 생활세계는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보다 왕성하게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 비대해질 이들 집단,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옥(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5권 제8호.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신정.
- 박민자·손문금(2006). 고령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1권.
- 박수미·선보영·김진옥(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2006).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생애주기별 접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4-03.
- 박영란·황정임(2002).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성 인지적 개선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영주 외(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00년 봄호.
- 이가옥 외(1995).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1호.
- 조경옥(2005). 여성 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7권 봄호.
- 통계청(2004).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통계청.
-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여성개발원(2006).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A Study on the Gender Gap in the Korean Elderly Women's Time Use

Soomi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life worlds' of Korean elderly women on the basis of their time use. This study analyzes the original source of 'Time Use data in 1999 and 2004'. In this study, 'work,' 'domestic labor,' and 'spare time' of elderly women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ction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lderly women's human capital was much lower than that of elderly men and remain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occupational status of elderly women including occupation type, working hours, etc. Their low educational backgrounds and employment as auxiliary work labor force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elderly women, and effectively change spare time and formation of life world. In the case of elderly women engaged in farming, they experience a double burden, as do married & employed women, because they not only have considerable paid working hours in spite of their aged ages, but also must perform unpaid work, and are far from the comfortable life of a retired senior. In regards to spare time, elderly women were hampered by poor personal background such as low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low occupational status, and poor economic independence level, which may present a serious problem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pare time to the elderly. Policy recommendations follow: 1) Creation of jobs for the elderly as an important task to be continuously carried out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ellow

2) Development of specialized cultural programs geared for the elderly to improve the generally poor quality of spare time, and augmentation of necessity for public relations.

Key Word: elderly women, gender gap, time use data, work, domestic labor, leisure